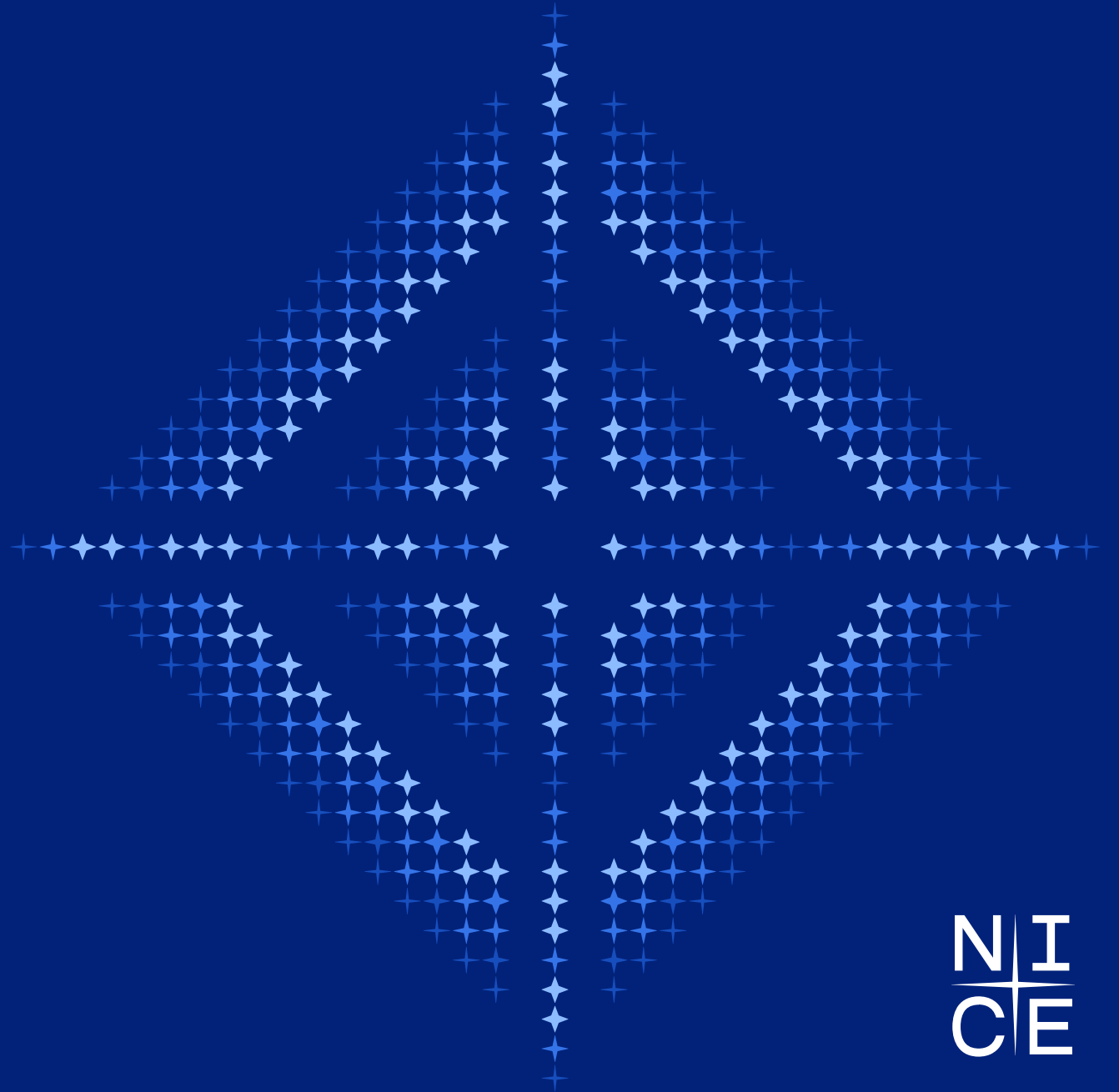


2026.01.20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Kick off 회의

대안신용평가 현황·활성화 과제



NICE 평가정보

NICE

CONTENTS

I. 대안신용평가란?

II. NICE 대안신용정보 제공 현황

III. 대안신용평가 이상과 현실

IV. 대안신용평가 4대 장벽

V. 대안신용평가 확대를 위한 제언

★ I. 대안신용평가란?

대안신용평가는 **금융 이력의 한계**를 넘어, **숨은 신용을 발굴**하여 '포용적 금융'을 실현합니다.

전통 신용평가 (Traditional CSS*)

얼마나 돈을 잘 빌리고 갚았는가?

전통적 통계모형을 활용한 평가



대안 신용평가(Alternative CSS)

일상 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게 영위하는가?



한계

- 금융이력 부족자(Thin-Filer)의 금융 **소외**
- 주부, 사회초년생 등 금융 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출 거절**

기회

- 금융이력 부족자 (Thin-Filer)의 금융 **사각지대 해소**
- 비금융 데이터로 성실 납부 패턴을 입증 시 **제도권 금융 진입**

* CSS(Credit Scoring System) : 신용평가시스템

★ II. NICE 대안신용정보 제공 현황

NICE평가정보는 통신정보를 시작으로 **소액결제정보**, **유통정보**, 나아가 **지급결제정보**까지 대안신용평가를 위한 제공 정보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급결제정보: 원장 기반 신용평가에서 현금흐름 기반 신용평가로의 전환을 알리는 서막



통신정보(Telco)

“통신 요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은 대출금도 성실하게 상환할 것이다.”

- 요금 납부 성실도 → 현금 유동성 관리 능력
- 단말기 할부 정보 → 부채 상환 능력
- 가입 유지 기간 → 생활의 안정성

통신정보(2016년)

통신정보는 MNO+MVNO 사업자에 대해 무선 서비스 이용내역 뿐 아니라 통합 유선 서비스, 통합 IPTV, 인터넷 서비스 이용내역까지 반영



소액결제정보 (Mobile Payment)

“소액 결제를 성실히 이용하는 씬파일러는 신용 잠재력이 높다.”



우수한 변별력

휴대폰 소액결제정보 기반으로, 특히 Thin-filer 고객군에서 기존 CB 스코어 대비 높은 평가 변별력을 입증했습니다.

소액결제정보(2019년)

휴대폰 소액결제정보는 소액결제 연체이력, 다중 채무 패턴, 결제 행태 등을 정밀 분석하여 잠재적 위험 고객군을 효과적으로 선별



유통정보(Commerce)

SK플래닛 협력 (2019)

“소비 행태는 계획적인 재무 관리 태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 11번가: 구매 품목/주기, 반품률 → 생활 안정성
- OK캐쉬백: 포인트 적립/사용 패턴 → 재무 관리 태도 (Financial Discipline)

유통정보(2019년)

SK플래닛('19년) 및 롯데멤버스 정보('20년)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결제내역 정보까지 반영하여 구매행태를 통한 재무관리태도 평가



금융결제원 지급결제정보 (Transaction Cash Flow)

“안정적인 현금흐름과 자산관리 특성, 생활 소비 행태는 신용 잠재력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



저축/투자 (Savings/Investment)

예-적금, 가상화폐 등 자산관리 유형 및 안정성 파악.

소득 (Income)

근로소득, 가맹점 매출 등 실제 현금 유입액 파악.



생활/납부 (Lifestyle/Payments)

간편결제, 세금 납부 등 생활 소비 행태 파악.



금융거래 (Financial Transactions)

특정인의 송금, 타행입출금 등 금융 네트워크 파악

지급결제정보(2025년)

금융결제원 정보('25년)는 타행이체, PG계좌 거래내역 등 고객의 소득과 지출 정보를 활용하여 현금흐름정보(Cash Flow)를 제공

◆ Ⅲ. 대안신용평가 이상과 현실

‘포용적 금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대안신용평가, 금융기관 실무 현장은 **병목 현상**에 직면해 있습니다.

포용적 금융 실현

모두를 위한 ‘포용적 금융’

- 금융소외자 금리인하 및 금융배제계층 금리부담 완화
- 중·저신용자 은행 접근성 제고
- 금융이력 부족계층을 위한 ‘숨은 신용점수 발굴’

금융기관 현실

대안신용평가 도입을 위한 ‘병목 현상에 직면’

- 정보 활용 한계에 따른 신용 변별력 확보 제약
- 다수의 동의 절차로 인한 고객 피로도 증가
- 시스템 안정성 확보



대안신용평가 확산을 위해 극복해야 할 4가지 장벽

1 데이터 분석

2 동의 절차

3 시스템 운영

4 정보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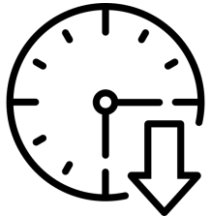
★ IV. 대안신용평가 4대 장벽

양질의 최신 데이터 확보, 서비스 안정성, 활용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문제점	상세 내용
<p>1</p> <p>데이터 분석 “데이터 시의성 상실(Loss of Timelines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가공 지연 : CB사/금융기관이 모형/전략 개발 목적의 대안정보 분석을 위해 가명처리 및 이종데이터 간 결합 시 상당한 시간(3~4개월)과 자원 소요 • 데이터 유실 : 대안정보 원천사별 상이한 데이터 포맷으로 결합 시 데이터 손실 발생
<p>2</p> <p>동의 절차 “동의 피로 및 이탈(Consent Fatigu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 피로 : 동의 징구 주체가 상이하여, 대안정보별 모두 개별 동의서 구성이 필요 • 이탈 및 포용성 저해 : 다수의 동의 절차로 인한 고객 중도이탈에 따른 금융회사의 대안정보 도입 부담 증가
<p>3</p> <p>시스템 운영 시스템 안정성 리스크(Risk of System Stabil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신 시스템 리스크 전이 : 외부 대안정보 API 장애가 안정성을 추구하는 금융회사의 핵심 여신심사 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 초래 • 구조적 안정성 한계 : 대안정보 보유사의 상시 대응 및 즉각적인 조치의 한계
<p>4</p> <p>정보 활용 “활용 유인 부재(Lack of Incentiv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별력 한계 : 긍정 정보 중심의 데이터 구성으로 인해 신용 변별력 확보에 제약 • 정책 유인 부족 : 금융회사가 대안신용평가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및 비즈니스 인센티브의 부재

★ V. 대안신용평가 확대를 위한 제언

대안신용평가의 **실질적 확산**을 위해 「신용평가체계 개편」 T/F에서 아래 사항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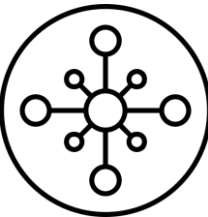
① 데이터 분석 : “가명결합 패스트 트랙”

- **가명결합 절차 간소화** : 반복적인 가명처리 및 데이터 결합 프로세스를 표준화하여 분석 리드타임을 1개월 내로 단축



② 동의 절차 : “포괄 동의”

- **고객 주도 포괄 동의** : 고객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직접 관리·활용하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포괄 동의를 통한 동의 피로 해소



③ 시스템 운영 : “대안정보 허브(Hub) 인프라”

- **대안정보 허브(Hub) 구축** : CB사/신정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표준화된 API를 설계하고, 허브로서 대안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시스템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



④ 정보 활용 :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

- **부실 예측력 강화 및 인센티브 제공** : 금융기관의 정교한 신용평가를 위해 Positive/Negative 양방향 대안정보 활용, 중금리/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한 대안신용평가 필수 적용 가이드

End Of Document

NICE 평가정보

NICE